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이어져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22일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 기탁이 이어졌다.

이날 (주)현대(대표 최현권) 3백만 원, (주)엔켐(대표 유재남) 3백만 원, (유)우보인(대표 이재길), 3백만 원, (주)인컴스(대표 진명종) 2백만 원, (주)헤드아이트(대표 김재환) 1백만 원을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에 각각 기탁했다.

이들업체 대표들은 “지역 내 청소년들이 지역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 미래 무주군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을 하고 싶다”고 전했다.

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 황인홍 이사장은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지역내 청소년들이 무주의 일꾼으로 성장하는데 밀가루를 될 것”이라면서 “무주의 청소년이 더 큰 인재로 성장하는데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남원소방서, 아태마스터스 대비 화재안전조사

남원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오는 5월 12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시행되는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이하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대비해 관내 대회 참가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숙박시설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전북 14개 시·군 일원에서 각국 1만여 명의 선수와 동반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생활체육축제로 양궁, 육상 등 24개 종목이 치뤄진다.

조사 주요 내용은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소방시설 등 적정 유지·관리 여부 △소방·피난·방화시설 등 화재 안전기준 준수 여부 △방염물품(커텐, 카페트 등) 적정 여부 △비상구 폐쇄, 훠손 여부 및 계단, 통로 등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이다.

소재실 서장은 “아태마스터스 대회는 세계 각국에서 생활체육인들이 모이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다”며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사고 없는 안전한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경찰서,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총력'

정읍경찰서(서장 황동석)는 신학기를 맞아 3월 말까지 정읍경찰서가 추진하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분석 및 안전대책을 실시한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다발 스쿨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녹색어머니·모범운전자회와 협업, 등하고 시간 어린이 안전지도, 보행자 중심 신호기 운영, 스쿨존 주변 주정차 단속, 어린이 대상 특별교통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여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에 위치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을 통해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 보행자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정읍=김대환 기자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공조체계 구축

남원 수지면-수지파출소-춘향골농협 수지지점, 업무협약 체결

남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면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행정과 경찰, 지역농협이 협력하기로 했다.

남원시 수지면(면장 방미자)은 22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방미자 수지면장, 김규주 남원경찰서 수지파출소장, 김영숙 춘향골농협 수지지점장이 참석했으며, 각 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공조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먼저, 이번 협약을 통해 수지면은 소통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1일 1가구 방문’과 연계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주요 사기수법을 안내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수지파출소는 관내 경로당 순회 및 유관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예방교육을 진행하며, 춘향골농협 수지지점은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대출받는 고객에 대해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방미자 수지면장은 “최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난방비 지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등장하는 등 날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면서, “수지면민의 재산보호를 위해 각 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노인지도자 교육·정기총회 실시

(사)대한노인회장수군지회(지회장 오재영)는 22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3년 노인지도자 교육 및 제52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최훈식 군수와 관내 경로당 회장, 총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노인지도자 교육은 279개소 경로당 회장 및 총무 등 임원들의 지도역량 강화를 통해 투명한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회계 실무교육, 심뇌혈관 예방교육 등을 진행했다.

이어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는 2022년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와 함께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오재영 회장은 “경로당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임원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교육이 노인 지도자분들의 역량강화와 함께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보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훈식 군수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오늘날 경로당 역할이 더욱 확대되고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시설로 인식되는 만큼 노인지도자 교육을 통해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경로당 임원분들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제 만경읍 적십자봉사회, 환경정화 봉사 펼쳐

김제시 만경읍 적십자봉사회(회장 안종열)에서는 22일 만경 내죽마을 교차로 인근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적십자봉사회 회원 20여 명은 지동차 교차로와 도로 주변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와 잡초 등 1.5톤가량을 수거하였다.

적십자봉사회 안종열 회장은 “환경정비에 동참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향후에도 깨끗하고 청결한 지역을 만드는데 회원들과 솔선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우)5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옥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845-4113
신천지사
010-2333-4791
서신지사
027-9417
호자지사
010-8845-9935

중앙지사 010-9088-6874
인후지사 246-6865
송천지사 255-2404
팔복지사 253-6844
군산지사 010-6789-0038
의산지사 858-9923

남원지사 632-3996
김제지사 545-1227
남원지사 632-0985
순창지사 653-0444
부안지사 010-2425-4182
고창지사 563-6999

임실지사 010-9642-2725
진안지사 433-3064
정읍지사 536-3787
장수지사 010-3682-6157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를 사랑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화재로 인한 사상자를 줄이기 위하여 불이 났을 때는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나면 대피먼저

- 불과 연기를 보면 비상벨을 누르거나 “불이야”라고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 잦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벽을 짚으며 낮은 자세로 대피하기!
- 비상계단을 통해 아파트으로 대피하고, 어려울 때는 화성으로 대피하기!
-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후 119 신고하기!
- 호기어 죽은 불은 소화기로 끄기!
- 평상시 소방훈련에 적극 참여하기!

소방청

장수소방서,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 먼저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최경천)는 22일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우선적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라북도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 건수 1만561건 중 공동주택 화재는 719건(6.8%)이나, 사상자는 66명(15.4%)를 차지해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위험성이 크다.

주 화재원인으로는 부주의가 420건(58.4%)으로 가장 높고, 전기적 요인이 154건(21.4%), 기계적 요인 42건(5.8%)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주의의 세부 원인은 음식물조리 234건, 담배꽁초 72건, 불씨방치 27건, 기기사용 부주의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발생 요인으로는 전체 66명의 사상자중 42명(63.6%)이 연기·가스흡입으로 가장 많고, 화상이 16명(24.2%), 연기흡입 및 화상이 7명(10.6%) 순으로 나타나 거의 모든 사상자가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을 담해 공동주택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장수소방서는 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연기화산 방지를 위해 우선 △출입문을 닫고 대피 후 119에 화재 신고 △화재진압 시도보다는 우선 대피 후 신고 및 안전확보 후 가능 시 화재진압 시도 △피난 시 승강기를 이용한 대피 길지 △아파트 내 설치된 피난시설 사용 방법·옥상층 피난 가능여부 및 피난경로 등 사전 파악 및 입주민 공지 등을 당부하고 나섰다.

/무주=전문선 기자

금산면 그래서! 산악회, 성금 100만원 기탁

‘금산면 그래서! 산악회(회장 한영하)’는 지난 21일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해 헌원한 감동을 주고 있다.

금산면 그래서! 산악회는 회장 한영하씨를 비롯하여 총무 김재영, 재무 김상순을 주축으로 건강한 몸과 정신을 다지고 이웃 사랑을 실천코자 하는 산악 동호회다.

2023년을 맞이하여 경제침체와 한파에 힘들어하고 있는 면민들을 위해 이웃 사랑 성금을 전달했다.

한영하 회장은 “여러분 시기에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여 십시일반으로 마음을 담았다”며, “이 성금이 이웃들에게 잘 전달되어 좋은 곳에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